

# 나주 중학생들 미국 현지 정규수업 참여...글로벌 역량 강화

17일간 메릴랜드주 교육·문화 체험...실전형 학습 수행

우수학생 6명,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교장 표창 수상

나주시가 겨울방학 기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학교 정규수업과 문화 체험을 연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나섰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중학생 28명이 최근 17일간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과 인솔자 4명이 참여해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현지 고등학교에 등교해 수

학·과학 등 정규 교과 수업에 참여하며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 방식을 직접 경험했다.

이를 통해 교과 내용을 영어로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실전형 학습을 수행했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발표 역량, 자신감을 함께 키웠다.

가정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병행하며 미국 가정에서 일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했고 문화적 차이를 체험했다.

감사 편지 쓰기와 영어 일기 작성 등 활동을 통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영어로



나주시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귀국했다.

표현하는 경험도 쌓았다.

현장 체험 활동으로는 워싱턴 D.C.와 뉴욕 일대를 방문해 한국전쟁기념관, 국회의사당, 자연사박물관 등을 견학하며

미국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했고 뉴욕 월 스트리트와 타임스스퀘어 방문을 통해 글로벌 도시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도 체험했다.

또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 놀이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혔다.

연수 기간에 수업 참여도와 미션 수행, 생활 태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금성중 이승찬 학생 등 6명에게는 세인트 빈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장 표창이 수여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경험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외국어를 활용하는 진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글로벌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인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1분기 운영위 개최 지역별 현안 논의

업무추진 방향·상반기 사업계획 등 공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최병상)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 1분기 전남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부의장을 비롯해 협의회장, 지역회의 간사, 분과위원장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상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별 운영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민주평통 주요업무 추진 계획, 상반기 전남지역회의 사업 계획, 시·군 협의회별 사업계획 등이 보

고 및 논의됐다.

최병상 부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1분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고(故)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전남지역회의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더욱 책임 있게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차원의 실천과 역량을 강화해 통일 운동의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회의는 올해 국민소통 강화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중점 과제로 삼고,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 1분기 전남지역 운영위원회'를 개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자문위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 협의회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통일 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는 앞으로도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탬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광주스마트심센터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4명을 선발, 최근 위촉했다.

## 광주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전문인력 위촉

예방교육 강사 8명·가정방문 상담사 6명...맞춤 교육·상담

광주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광주스마트심센터와 함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14명을 선발, 최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인력은 예방교육 강사 8명과 가정방문 상담사 6명이다. 이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방교육 강사들은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교육을 희망하는 곳에 파견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방문 상담사는 과의존 문제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과의존 치유와 회복을 지원한다.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스마트심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대표전화(1599-007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광주시와 광주스마트심센터는 지난해 총 4만5810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4만2714명)과 상담(3096명)을 진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만2005명의 2배(208%)가 웃도는 인원이다.

박해미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최근 들어 인공지능(AI)과 속품에 기반한 인터넷·스마트폰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신기술의 융합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지역 학생과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의존 예방교육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스마트심센터는 시청 3층에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해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스마트심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 조선간호대·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지역사회 건강 증진·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선간호대학교는 최근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선간호대 박명희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미경 원장, 광주 동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송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교육, 청소년 대상 교육 멘토링 및 봉사활동, 광주 RISE사업단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자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실천형 교육과 돌봄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명희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천하



는 계기”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간호대는 현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광주시교육청 광주동부마음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한문선 보임그룹 회장

## 여수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차 기증

한문선(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보임그룹 회장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제작된 특장차량을 여수소방서에 기증했다.

여수소방서는 한문선 회장이 시민 안전에 힘써달라며 스타리아 차량에 소방안전교육 맞춤형 특장을 갖춘 교육전용 차량을 전

심폐소생술 교육 차량은 각종 교육 기

자재를 탑재해 화재 예방, 생활안전, 재난 대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수소방서는 차량을 이용해 여수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문선 보임그룹 회장은 “시민의 안전



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기증을 통해 여수 시민의 안전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소방서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돌래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ონსე (음력 1월3일)

|  |   |  |
|--|---|--|
|  <b>쥐</b><br>48년생 밖의 것보다 안의 것에 신경써라<br>60년생 일에 순서가 있는 법 서두르지 말라<br>72년생 역할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br>84년생 자녀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하라<br>96년생 규칙적이라면 신뢰감을 준다 |  <b>소</b><br>49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br>61년생 예상치 않던 금전 지출이 생긴다<br>73년생 문서를 손에 쥐는 행운이 따를<br>85년생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라<br>97년생 남자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  <b>호랑이</b><br>50년생 예방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는다<br>62년생 모험성이 있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br>74년생 다 알면서도 팔을 늘어갈 수 있다<br>86년생 경쟁사는 작수가 아니라 마음 높아라<br>98년생 발상이 참신하니 속도를 천천히 하라 |
|  <b>토끼</b><br>51년생 일에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br>63년생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해결된다<br>75년생 변수가 작용하므로 상대적일 수 있다<br>87년생 주변 사람의 칭송을 받는다<br>99년생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       |  <b>용</b><br>52년생 욕심을 줄이면 큰 이익을 얻는다<br>64년생 새옹지마 이치, 차라리 더 낫겠다<br>76년생 원전에서부터 한 번 뒤돌아보라<br>88년생 가족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  <b>뱀</b><br>53년생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다<br>65년생 암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br>77년생 선택을 잘하면 실리를 취하게 되는 날<br>89년생 집안은 화목하나 이사·투자 금물                              |
|  <b>말</b><br>54년생 부동산 투자 생각이 있으면 바로 착수<br>66년생 혼자 해결 말고 이웃사람과 같이 하라<br>78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br>90년생 친구 도움을 받아야 해야 한다                    |  <b>양</b><br>55년생 거리를 조정하면서 예의 주시하라<br>67년생 지연된다면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br>79년생 자존심 내세우다 큰 위기에 처한다<br>91년생 한결 같아서 차이가 없다                           |  <b>원숭이</b><br>56년생 좋아하는 우리가 한들이 아니다<br>68년생 즐거움이 생기며 돕는이가 많아진다<br>80년생 포괄적인 조처가 이익 국면으로 조성<br>92년생 학업 성과가 미흡하나 장래를 다진다                               |
|  <b>염소</b><br>57년생 주관적인 임정을 객관화할 필요 있다<br>69년생 작은 것은 이를 것이다<br>81년생 의견을 주변에 강요하지 말라<br>93년생 금전 문제 시일을 끝게 될 것이다                              |  <b>개</b><br>58년생 소유하고 있는 문서 지켜야 할 시기<br>70년생 부동산 거래는 성공적으로 이끌 것<br>82년생 그 일 진행하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br>94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b>돼지</b><br>59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br>71년생 말 하금이 될 수 있으니 입 조심하라<br>83년생 헛것 달려보면 만족할 결과가 있다<br>95년생 허영 사치부리면 빈 주머니 된다                                     |